**유무기의 목장**

구치노에라부지마 섬 동부의 유무기에 있는 조영(町營) 송아지 목장은 1883년부터 1889년에 걸쳐 처음에는 양 방목지로서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드물었던 양 방목이 이웃 섬인 마게시마 섬에서 성공한 데 자극을 받아 섬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목장을 설립했습니다.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마즈 마타시치(1827~1911)는 유무기의 미개간지가 양 방목지로 최적의 지형이라고 믿고 이를 제공했으며, 또 군에서 양모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인 가네모리가 이끄는 집단이 1883년에 구치노에라부 목양사를 설립하여 그해 6월에 메이지 정부로부터 8,000엔의 융자금과 175마리의 양을 받았습니다. 양의 숫자는 1885년까지 570마리로 늘어났고, 1886년에는 75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료값과 운송비 등이 너무 올라 이 회사는 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태풍의 영향과 외진 곳에 떨어진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의 위치라는 과제에도 직면했습니다. 1889년에 이 목장은 문을 닫았고 공매에 부쳐졌습니다. 그 후 중앙 정부가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농업식민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남쪽의 아마미오시마 섬과 기카이지마 섬에서 유무기로 이주했습니다.

그 뒤 곧 이 땅은 송아지 목장으로 변경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의 분화로 송아지와 다른 가축이 어쩔 수 없이 피난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장의 활동은 쇠퇴했습니다.